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5 권)

대천덕 저 / 신양계 / 1998

김현진

대천덕 신부의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는 제1권 때부터 한국 교회에 대한 반향을 일으켜 왔다. 그것은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매우 신선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매일 대하는 재료이지만 요리를 잘했을 때 더욱 맛있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천덕 신부의 이야기는 한방에서 만드는 무슨 특별한 비방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모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써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된다는 것임을 신선한 시각으로 통찰해 주고 있다.

대천덕 신부는 이 책을 통하여 먼저 한국의 경제위기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그 원인을 말해준다. 그는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 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justice)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대천덕 신부는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성경의 경제정의는 구체적으로 ‘토지 정의’

(土地正義)임을 말한다. 레위기 2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토지 법인 회년법으로서 온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경제법임을 말한다. 레위기 25장이 말하는 토지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정의 - 회년법

안식년이 일곱번 지난 때, 즉 49년이 지난 칠월 십일 곧 속죄일에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년을 선포한다(레 25:10). 회년은 50년에 한 번씩 온다.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40여 년의 광야 유랑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히브리인들은 땅을 평정한 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열두지파별 규모에 따라 각각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받게 된다(수 14:19).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분배받은 그 해를 기점으로 일곱해 제 안식년을 보내고 이렇게 일곱 안식년이 지난 50년째를 대안식년, 즉 회년으로 지킨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구히 팔거나 살 수 없다(레 25:23). 사정에 의해서 부득불 팔 경우, 즉 빚이나 질병, 재해, 혹은 부당한 사회적 압력에 의해 내놓은 경우라도 회년이 되면 자신의 기업, 즉 땅을 되찾을 권리가 주어진다. 이것을 '토지무르기'(redemption)라고 한다(25절). 땅을 다시 되돌려 사거나 땅을 되찾는 토지무르기에는 네 가지 법이 있다.

첫째, 개인의 사정상 토지를 팔 경우이라도 그후에 능력이 생겨 판 값을 주면 회년이 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자기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24절). 둘째, 한 형제가 가난하여 땅을 판 경우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산 사람으로부터 다시 사들여 그 이전 소유자인 형제에게 돌려 줄 수 있고 친척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25절). 셋째, 그 땅을 다시 사서 되찾을 수 있는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스스로 땅을 살 여유가 생길 그때에 땅을 판 자는 적정한 시기를 치르고 자신의 땅을 다시 살 수 있다(26, 27절). 넷째,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살 능력이 없으면 그 땅은 회년 때까지 산 사람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고, 그후 회년이 오면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은 아무런 댓가도 치르지 않고도 그 땅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된다(28절).

회년에는 자신의 땅만 아니라 노예도 무상으로 해방시켜 주고 성 안에 있던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회년이 되면 집을 되찾게 해 주기도 한다. 회년을 통해 자기의 본래 땅을 되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토지 반환, 부채탕감, 노예해방을 통해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역경에 시달리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는 영구적 부익부 빈익빈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경제법이며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개인주의적 요소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깨끗이 청산하여 건전한 사회구조의 유지를 가능케 해 준다. 회년제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정비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가 회복되게 해 준다.

회년법의 현대적 실천

대천덕 신부는 회년법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한때 지켰던 율법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면 지금도 하나님의 법대로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근대에 들어서 회년법을 실천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은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였다.

그는 19세기 말에 사회를 풍미하던 통설, 즉 인구의 증가가 빈곤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반박하고 사회가 고도로 진보하는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존재하는 것은 토지의 사유에 원인이 있다고 간파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대의 100%를 조세로 징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조세는 일반적으로 토지가치세(single tax)라고 불린다. 그는 토지문제가 성경의 회년법대로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년법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토지가치에 대한 세금

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었다.

국가에서 토지를 공개념으로 취급하여 사고파는 일이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싶은 만큼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되 토지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토지를 빌려주고 세를 받고 연수대로 계산하라는 회년법의 원리에 의하여 (레 25:14-16) 매년 땅의 가치대로 세금을 받으면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회년 제도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도 다른 세금 없이 토지세만 내면(회년이 될 때까지 땅을 빌려 쓰기 위하여 한꺼번에 돈을 다 낼 필요 없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고, 회년법을 지키는 것과 꼭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헨리 조지가 발견하였다. 회년법을 그런 식으로 지킬 수 있도록 연구해 본 후 경제의 기초가 바로 토지인 것을 알아내어 그 주제를 가지고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이라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 셀러가 되어 전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홍콩은 1997년에 땅을 중국에 모두 반환해야 하기에 주민들이 땅을 살 필요가 없었다. 홍콩 정부는 땅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그 토지사용료를 받음으로 생산이윤이 부동산 투기에 투자되지 않고 상공업에 투자됨으로 홍콩이 그만큼 번영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법인지 몰랐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실천하여 그만큼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미국의 피츠버그의 경우 세계적 철강산업이 쇠퇴하고 낙후된 도시가 되었지만 토지분 재산세를 무겁게 부과하자 토지를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지주들이 땅을 내놓았고 토지시장은 활성화되고 건설붐이 일어나는 등 일련의 사태로 1989년 피츠버그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발되었다.

현재 캐나다의 서부 4개 주에서도 일부적으로 토지세제를 채택함으로써 밴쿠버와 빅토리아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시드니, 브리스베인, 웰링턴, 요하네스버그는 모두 재산세에서 현금을 제외하고 토지에서만 지역 수입을 올렸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헨리 조지 주의를 도입한 지역은 농업이 팔목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대천덕 신부는 한국이 6.25동란을 겪고 분단되어 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6.25동란 2개

월 전에 실시한 토지개혁에 있다고 말한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권고 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골고루 농토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배웠고 그것은 성경 레위기 25장의 회년법의 원리에서 온 것이다. 6.25동란에서 국군이 목숨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땅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웠으며, 그러한 토지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회년적 원리에 따라 그만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회년법의 원리로 경제를 보는 관점과 헨리 조지의 성경적 경제원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대천덕 신부의 공이 크다. 이로써 헨리 조지즘은 경제문제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실천의 강력한 교두가 되었다.

자비의 실천

하나님께서서는 미가서 6:8을 통해서 정의와 함께 ‘자비’(mercy)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가 되려면 정의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정의와 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비란 법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원해서 나눔을 실천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를 말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회년법이라는 ‘정의’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법은 600여 년 동안 지켜지다가 인간의 탐욕에 의해 폐기되었다. 그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사역으로서 ‘새로운 회년’을 선포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7-19)

더이상 구약의 회년법은 지켜지지 않지만 회년법이 시행됨으로 많은 가난한 자들이 구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에게 스스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치 회년이 실천되는 사회와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언약에 의해 예수님이 선포하는 새로운 회년의 의미이다. 구약의 회년이 법으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적 회년이라면, 신약의 회년은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섬김으로써 사회문제를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해결하는 ‘자원적인 회년’이다. 이 자원적인 회년은 성령을 받아 속사람이 변화되어 스스로 나누고 섬기는 ‘코이노니아’, 즉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인 삶을 말한다. ‘자원적인 회년’은 공동체성이 충만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실천된다.

이러한 자원적 회년이 바로 ‘자비’(mercy)의 문제이다. 회년법을 통한 경제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비의 법’이 사회적 불의(不義)의 틈새를 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적 회년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성령에 의하여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적 삶으로 자비를 실천하게 하여 경제정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회년사역이라고 선언하셨다(눅 4:17-19). 그 회년사역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 초대교회가 공동체로 살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을 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행 2:42-45). 신약 교회는 자원적 회년의 실천기관이다. 구약의 회년의 역할은 신약시대에는 ‘코이노니아’(Koinonia)를 통하여 대체된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원적 회년의 실천은 구약의 회년의 법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의 회년의 성취이다. 자비는 고통당하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천된다.

경제 위기의 대안 - 정의와 자비의 회복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나라가 거의 경제적 위기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대만은 불황을 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대만이 회년법의 정신이 반영된 토지제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오늘날 헨리 조지 이론에 따라 토지제도를 실행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지금까지도 토지법을 바꾸지 않았다. 대만의 국부 장개석은 손문에게서 이 원리를 배웠으며 손문은 미국 유학시 샌프란시스코의 예언자 헨리 조지에게서 성경적 토지법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대만에서는 정부가 주민들로부터 매년마다 그 땅에서 예상되는 이익만큼의 임대료를 걷고 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회년에 땅을 되돌려 주는 값을 매년 지불하는 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제도를 '토지가치 기준세금'이라고 한다.

그 결과 전세계가 대만에 빛을 지고 있는 반면, 대만은 그 어느 나라에게도 빛을 지고 있지 않고 외환 보유고가 넘치고 있다. 대만은 비록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실업자가 거의 없다. 대만은 성경적 토지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물질적인 면에서는 가난을 모르는 부요를 누리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요한 이유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세부담이 과중하며 엄청난 토지 및 건물 임대료와 고인건비가 합쳐져서 가격경쟁력 면에서 경쟁국과 뒤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땅주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땅주인들은 (땅값이 비싸서) 공장 부지나 사무실 등을 임대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임대료를 부과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생산활동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게 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땅주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가치세를 실시하면 토지의 가격이 하락되고 임대료가 싸지며 제조업의 원가와 사업비용이 낮아지면서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탄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천덕 신부는 한국이 현재 처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미가서 6장 8절 말씀으로 제시한다. 정의와 자비가 땅에 떨어졌기에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6. 25동란 직전 소수의 지주들이 토지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전국민들이 골고루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 ‘정의’를 실천했다. 또한 6. 25동란 이후 북한 피난민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남한 주민은 수백만 명의 북한 피난민(나그네)들을 학대하지 않고 형제애를 발휘하여 고통당하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삶으로써 ‘자비’를 실천하였다. 한국이 분단상태에서도 그동안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도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정의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마 6:33) 해야 한다. 1999년은 한국의 회년의 해이다. 1950년 4월 토지개혁을 통해서 일본인 지주와 한국인 지주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땅을 되찾거나 되살 수 있는 권리가 합법적으로 주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1950년은 회년의 해였다. 이제 1999년 49년째 되는 해이므로 회년이 시작되는 해이다. 회년은 토지분배 후 49, 50년 2년을 회년으로 지킨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매 50년마다 회년을 실시하는 이유는 땅을 기반으로 하는 독점 부패 경제의 뿌리를 50년마다 갈아엎어 버림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조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우리 나라의 IMF가 50년 토지개혁 후 거의 50년째 왔다는 것은 성경적 경제정의를 위한 심판의 사이클이 다시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사이클이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불의의 구조를 정의의 구조로 구조조정 하시려고 IMF를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정의의 칼날을 대신 것이다. 성경은 이미 수천년 전에 한국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

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이방 나라의 대토지 소유제)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피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옥을 담당하리라(미 6:16)

1999년은 해방 후 두 번째 돌아오는 회년의 해이다. IMF의 쓴 열매를 먹고 있는 우리 나라도 대만처럼 토지가치 기준세와 같은 법을 실시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통당하는 이웃인 실직자들과 나누고 섬김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자원해서 분담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세기의 끼니도 먹지 못해 굶주림에 빠져 있는 북한 동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IMF를 당해서 우리 살기도 빠듯하지만 더 극한적인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의 형제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나누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를 행하는 일이다.

토지정의의 실천과 자원적인 회년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부요와 축복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성경적으로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표류하는 한국호의 구원을 위한 귀한 가이드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대천덕 신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법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부언한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다. 기도는 선택 사항도 아니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쓰이는 최후의 수단도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삼상 12:23). 기도는 일이다.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우리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 김현진 ■

1956년 생 계명대학교 영문과 졸업, 총신대 신대원(M. Div), 총신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미국 Bethany College of Missions 수학, 화란 Utrecht University 신학부 박사과정(Ph.D. cand). 현재 공동체 코이노니아 하우스 대표, 광명 학온교회 담임. 역서 「세계의 예수공동체」(무실), 외 에 다수, 저서에 「공동체신학」(예영커뮤니케이션) 등 다수논문.